

# 태국 경제와 진출기업 동향

## 1. 사회기반 정비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감소

태국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의 호조와 수출의 대폭적인 신장에 의해, '86년 후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 연속하여 두자리 성장을 달성, 1인당 GNP도 '85년의 7,000弗에서 '90년에는 1,400弗로 2배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요인이었던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88년의 투자신청건수 1,272건(12월중 일본은 389건)을 피크로 급감, '90년은 638건(동 199건) '91년은 378건(동 129건)이 되어, 급년은 '91년의 실질경제성장률 7.5%(추정)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정부 전망으로는 8.0%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전망도 경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기의 장래 불투명,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 사회적 생산기반의 진행, 3월에 실시 되는 총선거 등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태국정부는 '86년에 개시된 제1차 5개년계획 이후, 6차에 걸쳐 실시해 온 국제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성과를 기초로, '91년 10월부터 제7차 계획을 시작했다.

현재 태국 경제는 고성장의 여파에 직면, 사회적 생산기반의 정비, 인재육성, 소득격차, 지역격차의 시정,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직면 과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제반문제의 대응, 해결책이 제7차 경제사

태국경제는 폭발직전의 간선도로, 사방에 보이는 고층빌딩과 고속도로 공사현장, 소음이 많은 방콕은 바로 태국의 근대화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태국의 社會的 생산기반의 실태와 진출기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회 5개년계획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계획은 경제의 안정을 수반한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유지, 소득격차의 시정 및 개발성과의 지방분산, 인적자원, 생활의 질, 환경 및 자연자원의 개발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이

〈표-1〉 BOI외국투자 신청 건수와 조업 건수

년	투자신청건수 (건)					조업건수 (건)				
	'87	'88	'89	'90	'91	'87	'88	'89	'90	'91
합 계	630	1,271	856	638	378	86	136	196	292	292
일본	200	389	233	199	129	30	46	90	124	122
대만	178	400	207	131	60	8	23	56	62	70
홍콩	46	126	106	75	36	11	17	17	25	24
영국	16	40	39	28	18	0	0	7	10	7
싱가폴	37	90	45	39	35	4	11	9	22	24
미국	61	136	76	72	52	10	15	14	21	34
영국	26	45	40	31	25	9	14	5	9	23
프랑스	14	25	22	10	8	2	4	3	8	12
독일	7	18	18	14	17	0	3	1	8	11

(자료 : BOI)

〈표-2〉 태국의 주요경제 지표

	1990년	1991년	備考
인구(万人)	5,680	5,690	'91년(전망)
1인당名月GNP (US弗)	1,444	1,663	"
성장률(%)	10.0	7.5	'91년(추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6.0	5.7	"
자동차판매(대수)	304.1	252.1	
전년비(%)	46.0	▲8.6	'91년(1~11월)
오토바이판매대수	732.8	561.9	
전년비(%)	24.6	5.3	'91년(1~9)
외화준비고 (US억弗)	143	178	'91년(11월말)

기간중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9%, ② 계획 최종 연도의 1인당 국민소득 7만 5,000 Baht=약 5억엔), 실질연평균 7.6%의 성장, ③ 사회적 생산기초의 억제 (연 5.5% 이내), ④ 무역, 경상수지 적자증가의 억제 등 달성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 2. 전기통신분야 등 산업기반 확립 투자에 우선

제7차 경제사회5개년계획 기간중 태국경제는 연평균 9%의 성장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의한 것인데, 투자신청, 승인건수는 '88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기타 동남아시아제국연합(Asean)에 비교하면 크므로, 과거에 승인을 받은 안전의 조업개시 건수는 현재가 피크이다.

이 태국의 투자정책(내자·외자를 불문)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약칭=BOI)이다.

경제급성장에 따른 수송망과 통신망, 그리고 인재육성 등 사회적 생산기초 부족의 노정 등 각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산업기반 확립을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생산기초 부족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BOI의 와니부 장관은 강조하였다.

사회적 생산기반 정비의 하나로써, 태국정부는 민화도입의 촉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하나가 통신분야이다.

태국에서는 전기통신의 경제사회 개발의 중요한 기반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기본적으로, 태국전화공사(TOT)가 국내 전화업무, 태국통신공사(CAT)가 국내 전화이외의 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하여, 전기통신의 정비확충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아직 국내 회선수가 저조하여, 100명당의 보급률은 1.76%, 또한 지역격차가 현저해, 서비스품질, 보수체계가 불충분하다는 문

제를 안고 있다.

이 외 민간기업인 CP Group의 자회사「Telecom Asia사」에 회선부설의 인가가 할당되었다. 그것은 5년간에 수도권에 200만 회선을 부설하는 것인데, 톤차트 회장은「그 중 연내에 10만 회선을 완비, '93년 5월까지는 40만 회선을 부설한다」고 한다.

또한 이 Project에 대하여 동사는 광 Fiber와 디지털 통신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방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에게 100만 회선의 설치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하면 '96년까지는, 합계 540만 회선이 되어, 100명당 8.5회선이 될 것이다.

한편, 자동차·휴대전화의 보급도 현저하다. 현재 태국에서는 3 시스템이 있는데, 퍼스컴 기타 주요도시를 커버, '95년까지는 22만 5,000 회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시대를 초월한 동향은 그 뿐만이 아니다. 「시나와토라 Data통신사」는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Data Network의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인데, 동사는 '93년 사용개시를 목표로 통신위성을 발주하고 있다.

이 외 Teleport, Paging Service 등 민간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3. 기술인력 부족-태국공대, 經國連이 협력

또한 사회기반 정비는 늦기는 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다.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시정을 위하여 기업위치를 지방에 분산하는 정책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는 크로즈 업 된것이 급속히 변화되는 경제사정에 재빨리 대응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이다.

기업은, 설비를 도입만 하면 곧 공장을 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재육성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의 성장정도와 비교하여 최근 2년간 어느

정도 정제하게 된것은 외적요인은 물론 기술자의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액의 투자, 두번째는 급속한 경제사정의 변화에 교육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었다.

노동면에서는 일반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 기술계 대졸자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여 엔지니어 전문가의 부족이 계속되어, 우수한 인재 발굴도 실시되었다.

급격한 투자리쉬로 임금도 상승하였다. 그것보다도 기술계의 만성적인 부족이, 현지 진출 기업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태국에는 19개의 국립대학과 17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91년의 공학부의 졸업자수는 국립·사립 모두 약 4,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금후 5년간, 경제가 연간 6%내지 8%의 비율로 성장하면 대학은 해마다, 현재의 2배의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학계대학의 신설과 기존의 공학부 정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학부의 증설로 직면하는 장해의 하나로서, 정직 등에 의한 교수진의 부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들어 경제급성장의 외곡현상이 보여진다.

제7차 5개년계획의 최종연도에는 과학·공학계의 문화계의 학생수의 비율을 5대 5로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도 인재육성의 협력을 권유하고 있다.

그 하나의 표현이 금년 6월부터 제1기생의 모집을 개시하는 태국공과대학(가칭)이다. 일본의 經國連과 태국산업연합(FTI)이 협력하여 설립한 것인데, 理工系 졸업생을 배출하여, 그 부족을 해소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국공과대학은 태국 국립대학의 톱 클래스인 타마썬트대학의 시설을 사용하여, 수료자에게는 타마썬트대학 졸업자격이 수여된다. 판민 일체가 된 인재육성 Project이다.

#### 4. 기술지원 등 민간기업 육성

방콕에 있는 일본인 상공회의소의 회원수는 현재 896사, 이것은 세계 주요도시에 있는 일본인 상공회의소 중에서 제일 많다.

이 업체별 회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회사가 5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상사회사가 18.3%, 토목·건설이 9.8%, 지하금융, 항공·운수 기타의 순서이다.

또한 이 제조회사 중에서의 업종별 비율에서는 전기·기계가 24.4%, 자동차가 15.5%, 섬유가 13.8%, 화학이 12.9%로 전기 메이커 수가 매우 많다.

태국의 전기 메이커가 진출하게 된 것은 송하전기가 '61년 설립이라는 것도 있지만, 빠르면 '60년대 후반에서 '70년에 걸쳐서 시작되었다. 급격히 진출이 상승한 것은 '88년부터이다.

중요한 가전메이커 부품 메이커가 태국에 모여, 최근에는 정보통신, 반도체분야에서의 생산거점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

日系 기업을 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구하여 태국에 진출하여 왔는데,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간과할 수 없다. 기업노력, 질이 좋은 노동자, 정부의 산업육성책 등 세가지 요소가 잘 배치된 태국의 생산기술은 장족의 발전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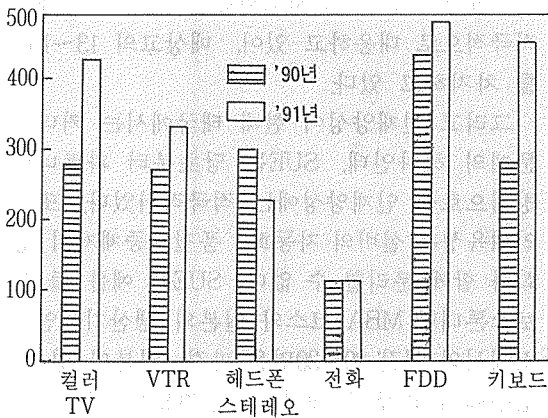
반면, 투자의 확대에 따라서 원재료와 부품관계의 수입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투자위원회(BOI)에서는 전자산업, 특히 수출부문은 점점 태국경제속에서 중요성이 더해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지산업의 육성을 도모함과 함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금후, 현지에서 설계,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급성장에 따른 사회적 생산기반부족, 진출기업은 여러 가지 여파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각사 모두 태국을 해외전략의 중요거점으로 하고, 문제점을 하나 하나 클리어 하면서 더 한층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 1) 태국의 주요 電子機器 生産動向



### 5. 품질에 대한 의식 강화

방콕시의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동쪽으로 약 1시간 달리면 태국 공업단지회사(IEAT) 개발에 의한 라트 크란바 공업단지가 있다. 현재, 태국 국내에 7개 IEAT의 공업단지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업시설은 물론 통관사무와 상업은행 또는 통합은행 등을 병설하고 있다.

日系기업인 도요다, 삼능모터, 아마하 등을 포함한 약 100사가 동단지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 한모퉁이에 Sony가 태국 투자위원회(BOI)의 인가를 받아 Audio, Video의 제조공장, Sony Magnetic Products (태국)社 (약칭=SMPT)을 설립한 것이다.

1988년 9월부터 VHS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또한 1990년 1월부터 Audio 카세트 테이프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재, 2년간 생산량은 VHS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1,340万産,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3,760万産이 되었는데, 그중 VHS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는 전생산의 16%가 태국 국내판매, 나머지 64%가 수출되어, Audio 카세트 테이프는 모두가 일본, 구주, 미국 등 전 세계를 통하여 수출되고 있다.

동사의 누적투자 총액은 6억 9,400 Baht (약 37억, 5,000만엔)불, 연간 매상고는 12억, Baht

(약 60억엔)이다.

BOI의 허가공장으로써 SMPT는 7년간 (1995년 8월까지)의 법인세 면제, 생산설비기계의 수입세 면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세 면제 등 특징을 갖고 있는데 「BOI와 IEAT의 투자장려에 기인한 특전과 우대조치는 확실히 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장점이다. 그러나 SMPT가 첫번째 테마로써 대응하고 있는 것은, 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브랜드이미지의 고양을 더욱 도모하는데 있다」고 고내사장은 표명하였다.

언어문제라는 장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하여, SMPT에서는 생산에 관한 것은 물론 품질관리, Management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기업 메뉴얼을 태국어로 작성 또한 여기에서는 Man Machine System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업전의 사원 훈련은 동경에서 지도자를 불러 현지에서 실시하였다.

이것이 상승을 여유있게 한 것과 함께 품질에 관한 의식을 당초보다 사내에 철저하게 의식시키고 있다.

그 결과, VHS비디오 카세트의 양산을 개시하여 반년제에 일본전자부품 신뢰성보증센터의 인증시험에 합격 “GQ 마크”를 취득하였다.

Sony의 해외에 있는 기타 4개구에 있는 테이프공장에서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사원의 의식개혁, 능력개발 그리고 레벨 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은 사내에서 실시하며, 현장에서는 CEDAC 차트(카드대년 특성요인도)를 사용한 소집단에 의한 QC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가 GQ마크 취득이며, IEAT가 주최하는 “All Thailand”상 또한 “Exporter Awards” 등 여러 가지의 수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6. 일본과의 GAP 탈피-인재육성, 신뢰관계 구축

또한 태국은 사회에 대한 환원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핵으로 하는 산업협력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지측과의 20년에 걸쳐서 육성된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1989년에는 日系の 가전 메이커로써 처음으로 주식상장도 실시하였다.

경영면, 제조면에서, 어떤 일정한 현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SUE의 전신은 1959년 현지자본으로 설립된 Universal전기인데 삼정전기는 동사에 냉장고 제조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1969년에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현사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주 생산품목은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동 show case, 냉장고용 압축기 등이다. 1991년도의 매상고는 약 200억엔이다. 이 매상고중에서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태국 국내의 생산대수에 대해서도 OEM을 포함하여 5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SUE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한 공장은 아니지만, 환경의 변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상고의 13~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양성이 현재 태국에서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인데, SUE는 당초부터 파트너의 방침으로써 인재양성에는 적극적이었다. 또한 인재육성은 설비의 자동화, 품질보증체제의 강화와 함께 분리할 수 없다. SUE는 예를 들면, 보스톤대학 MBA 코스와 일본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의 연간 20~30명을 파견, 일본의 명 사업부에서 스텝진 내사,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레벤 업을 도모하고 있다.

오랜 역사속에는 우수극절도 있었으나, 현지의 방법, 현지의 척도를 중요하게 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Give & Take가 아니라, "Give·Give & Take" 차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다.

## 世界電子市場情報

# 일본 전자계산기 생산 전망

전자협·계산기계위원회에서 전자계산기 관련의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통산성 생산동태 통계조사를 베이스로 '92년의 생산 예측을 하였다.

또한 이 예측은, 지정통계인 통산성 생산동태통계조사를 베이스로 실시하였는데, 당협회의 자주통계에 기인한 각 시장위원회의 예측치와 회사수, 분류방법에 대하여 베이스를 달리하고 있다.

전자계산기관련업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국내(日本)의 경기후퇴 염려, 수요비중이 높았던 금융업계의 정보화 투자의 不調, 歐美의 컴퓨터 수요의 하락 등의 영향은 있지만, 명 기

업의 합리화·정보화 투자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한편, 기술환경을 살펴보면 Open System화 및 Network와 다운 사이징이 진전하여, 퍼스컴/워크스테이션의 수요확대가 계속되는 한편, Data Base 머신/Management 머신으로써의 범용기의 Need도 높아 여전히 강력한 수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자계산기 전체에서는 '91년의 실적전망은 전년대비 5.1%증인 6조 1,100억엔, '92년의 예측은 전년대비 7.1%증인 6조 5,440억엔으로 견조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산기 본체를 살펴보면, '92년의 실적예상은 전년대비 8.7%증인 2조 7,970억엔, '92년의